

# OECD-FAO 세계농업전망 2025-2034: 육류 및 유제품류 전망

김 경 진\*

## 1. 개요

본 고는 OECD-FAO의 농업 전망 2025-2034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 세계 축산부문(육류 및 유제품) 시장<sup>1)</sup>을 다루고자 한다. 본 고의 주요 내용은 향후 10년간 축산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정리하고 크게 주요 동향, 시장 전망, 위험 및 불확실성 등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 전망 부문은 소비, 생산, 교역, 가격 전망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가축 질병, 기후변화, 소비자 선호의 변화, 무역 정책,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축산부문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2. 육류

### 2.1. 최근 시장 동향

2034년 세계 육류 생산량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3억 6,500만 톤으로 추정된다. 축종별로 살펴보면, 가금육과 쇠고기 생산은 증가한 반면, 돼지고기와 양고기 생산은 전반적으로 정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호주, 브라질, EU, 미국을 중심으로 생산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kkj0470i@krei.re.kr).

본 고는 「OECD-FAO 농업전망(Agricultural Outlook) 2025-2034」보고서 중 제5장(Meat)과 제6장(Dairy and dairy products)을 번역·정리한 것임.

1) 세계 시장은 북아메리카(미국, 캐나다), 라틴아메리카(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유럽(EU,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프리카(이집트,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아시아(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튀르키예, 베트남),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고 있음.

확대되었으며, 특히 브라질은 주요 축종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높은 국제적 수요와 더불어, 유리한 환율 여건과 낮은 사료비로 인한 수익성 개선, 그리고 가축 질병의 미발생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생산량 증가는 교역량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2024년 세계 육류 수출은 2년간 감소 후 반등하여 전년 대비 약 2% 증가한 4,020만 톤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서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수입 수요 확대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수입국 내 공급 제약과 쇠고기 및 가금육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멕시코 등도 소비 수요 증가와 관세 조정에 따라 수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수입을 확대하였다. 특히 브라질은 국제수요, 환율, 공급 환경 등 긍정적인 여건으로 쇠고기 수출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또한 가격 경쟁력과 강한 수요에 힘입어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국내 생산 증가와 소비 지출 둔화에 따른 수요 약화로 수입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가별 수급 여건의 차이 속에서 2024년 FAO 육류 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2.8% 상승한 평균 117.3을 기록하였다. 이는 수입 수요 확대가 주요 수출국의 공급에 의해 일정 부분 조정되면서 가격상승 폭이 제한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2.2. 시장 전망: 2025-2034

### 2.2.1. 소비

전 세계 육류 소비는 2034년까지 가금육 21%, 양고기 16%, 쇠고기 13%, 돼지고기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구 및 소득의 급격한 증가로 전체 소비 증가분의 약 45%가 중위 소득 국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브라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국, 베트남에서 소비 증가 폭이 클 것으로 보이며, 아프리카의 인구가 향후 10년간 15억 명에서 18억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육류 소비는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인당 전체 육류 소비는 2034년 29.3kg까지 증가하여 현시점 대비 약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전 10년간 증가율의 절반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전체 육류 소비의 35%는 세계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고소득 국가에서 소비되고 있으나, 1인당 육류

소비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비 증가세 둔화는 소비자의 선호 변화와 더불어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는 줄이고 가금육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고소득 소비층에서는 동물복지, 환경 및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1인당 육류 소비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양상도 보인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EU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대신 가금육으로의 대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1인당 전체 육류 소비는 정체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중기 육류 수요 구조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축종별로 살펴보면, 가금육은 향후 10년간 세계 육류 소비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2034년까지 전 세계 가금육은 약 1억 7,300만 톤을 소비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 육류 추가 소비 증가분의 6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간 가금육 소비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브라질, 이집트, 멕시코, 필리핀, 미국 등에서도 빠른 소비 증가가 전망된다. 2034년에는 가금육은 육류 단백질 공급의 4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가금육이 낮은 가격과 단백질 대비 지방 비율이 높은 영양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고기와 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에 비해 생산 과정에서 자원 투입과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는 특징이 소비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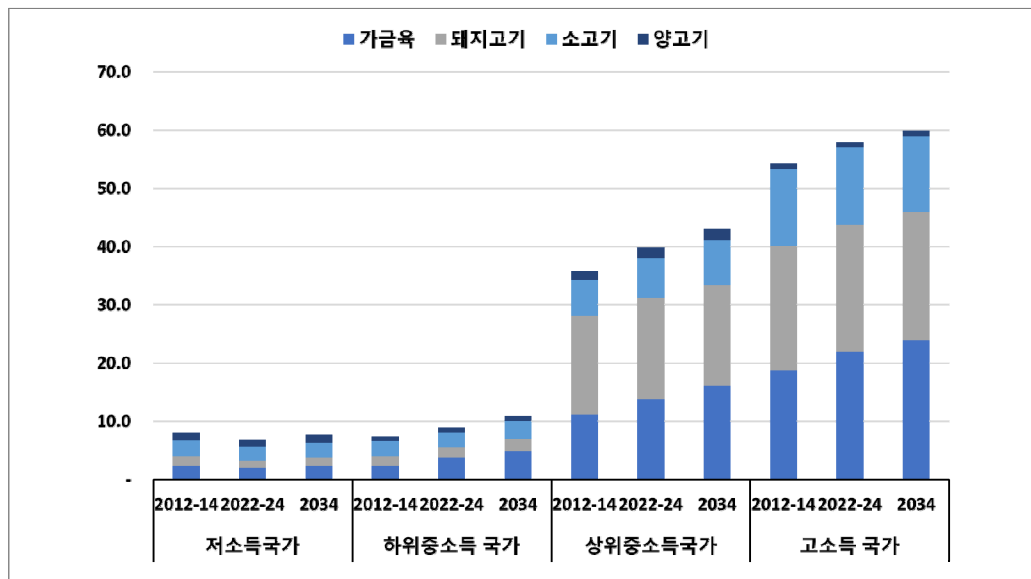
돼지고기 소비는 중국, EU, 일본, 스위스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국가의 소비는 건강, 환경, 사회적 요인의 영향으로 현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돼지고기는 2034년까지 약 1억 3,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기준기간 대비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소득 지역에서 1인당 소비가 정체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돼지고기와 쇠고기 간 상대적 가격의 차이로 인해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연간 1.3kg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아시아, 북미, EU 등에서는 1인당 소비 증가폭이 제한적이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쇠고기 소비는 향후 10년간 약 8,400만 톤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약 6kg 수준에서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지역에서 쇠고기의 소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중동과 아시아에서는 2034년까지 1인당 소비가 각각 약 0.62kg, 0.61kg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해당 지역의 증산층 확

대 및 소득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전통적으로 쇠고기 소비 수준이 높았던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에서는 상대적 가격 상승과 쇠고기 생산의 환경적 부담에 대한 우려 확산으로 1인당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고기는 세계 육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나,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는 돼지고기의 대체재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분석 기간 중 전체 육류 단백질에서 양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고기 소비는 전통적·문화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으나, 가용성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쇠고기나 가금육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소비가 대체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소득 수준에 따른 축종별 1인당 육류 소비량



자료: OECD/FAO(2025: 86).

### 2.2.2. 생산

세계 육류 생산은 2034년까지 4억 600만 톤으로 증가하여 기준기간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증가분의 55%는 아시아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가금육의 생산은 약 1,5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이후 회복 국면

에서 중국은 전 세계 육류 생산 증가분의 약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8%), 미국(8%), 베트남(7%)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남미는 토지, 사료, 가축 유전자원 측면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생산 비중을 점차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는 양고기(22%)와 쇠고기(10%)의 생산 비중이 높아 세계 육류 생산의 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낮은 경제성장, 농업 투자 부족, 환경 악화, 일부 지역의 사회적 불안, 열악한 인프라 및 수의 서비스 부족 등 구조적 제약요인이 존재하나 가금육 중심으로 생산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금육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육류 생산 구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간 추가 생산 증가분의 62%를 가금육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상위 중소득 국가의 내수 수요 증가에 따라 빠른 생산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가금육은 짧은 주기, 높은 사료 전환효율,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 비용, 시장 인근에서의 생산 가능성 등에서 타 축종 대비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sup>2)</sup>의 확산은 주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산 밀집도가 높을수록 질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며, 감시 및 차단 체계 강화는 피해를 제한할 수 있으나, 백신 접종 등 산업비용 상승의 주원인이 된다. 또한 항생제 사용, 동물복지 문제 등 환경·보건 관련 이슈 역시 생산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돼지고기 생산은 아시아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sup>3)</sup> 회복을 전제로 전망 기간 전반부의 생산이 회복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은 2034년까지 전 세계 육류 생산 증가분의 1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베트남 등 ASF 영향을 받았던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규모 전통 사육 방식에서 생물보안 수준이 높은 대규모 상업적 기업형 사육으로의 전환이 진행되면서 생산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 생산은 도체 중량 증가, 출하 확대, 유전적 개량, 사양관리 개선 등에 힘입어 중기적으로 2034년 8,4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의 국내 소비 증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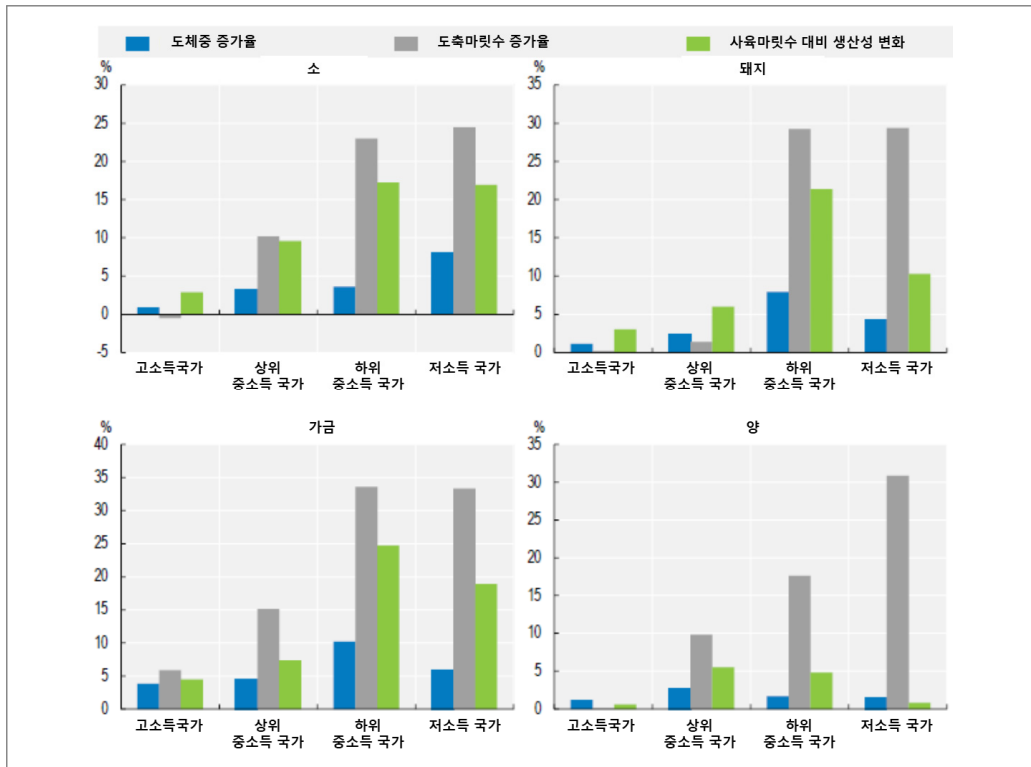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는 닭·오리와 같은 가금류에서 높은 폐사율을 보이는 급성 전염병으로 인수공통감염 가능성이 있어 국제적으로 강력한 방역 관리 대상이 되는 질병으로 국내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1종 가축전염병에 해당됨.

3)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돼지와 멧돼지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매우 높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현재까지 없어 발생시 살처분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가축 질병으로 국내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1종 가축전염병에 해당됨.

더불어 인도의 수출 지향형 통합 육가공시설 확충 등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호주, 캐나다, 미국은 전망 초기에 사육마릿수 감축 국면을 지속하겠으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이후 생산 확대를 유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고기 생산은 유리한 가격 여건에 따른 사육마릿수 증가로 인해 2034년까지 1,9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육용 목적의 양·염소 사육을 확대하여 추가 생산의 17%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EU는 생산연계 소득지원과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동남부 유럽의 일부 국가는 양·염소두창 확산으로 생산 위축 가능성으로 전체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질랜드는 토지 이용 경쟁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인해 사육마릿수 확대에 제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생산 증가는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는 양모 중심에서 육용 중심 품종으로 사육 형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 부문별 생산성 지표의 전망 변화(2034년 대비 기준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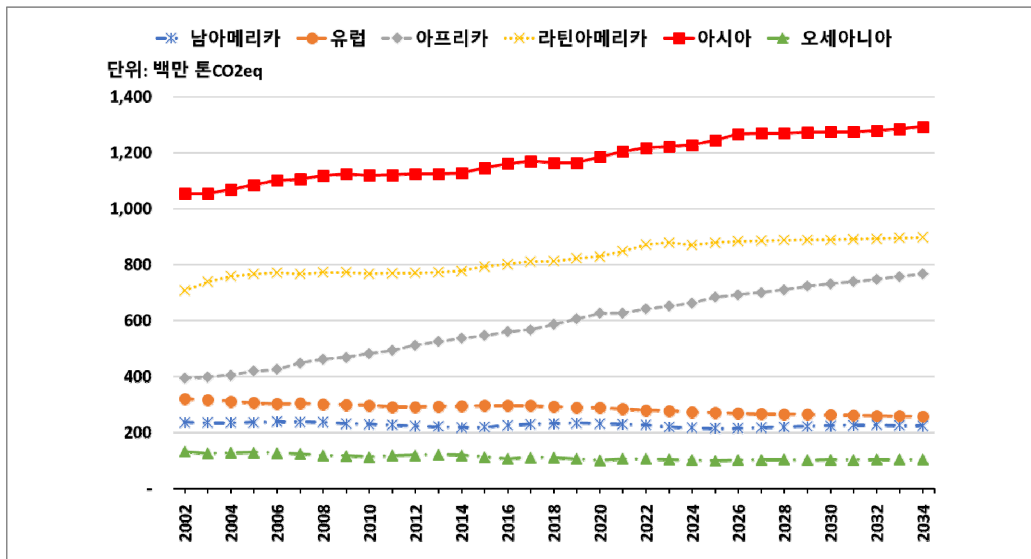


자료: OECD/FAO(2025: 89).

이와 같이 다양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생산성 향상은 육류 생산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육류 산업은 높은 투입재 비용, 강화되는 환경 및 방역 규제, 반복되는 가축 질병 발생 등 복합적인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 사료비는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타 운영비와 노동투입비용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인다. 이에 따라 개량기술 개선, 사양관리 고도화, 도체중 증가 등을 통해 생산성 제고가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상위 및 하위 중소득 국가에서 생산성 향상은 육류 생산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부문은 환경적 영향에 대해 사회적·정책적 검증이 강화되고 있다. 다만, 축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34억 톤 CO<sub>2</sub>eq<sup>4)</sup>에서 2034년까지 35억 톤 CO<sub>2</sub>eq로 약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육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시점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기준기간 대비 18%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럽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대륙별 육류 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자료: OECD/FAO(2025: 90).

4) CO<sub>2</sub>eq(이산화탄소환산량)는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CO<sub>2</sub>)로 환산한 등가량으로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임.

이와 같은 배출 증가율은 같은 기간 육류 생산이 13% 증가하는 것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이는 가금육을 중심으로 생산 구조가 전환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각국에서 추진하는 저탄소 축산정책의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생산성 향상은 동일한 생산량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육마릿수를 감소시킴으로 배출 증가세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축산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가축 사육마릿수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단위 생산량당 효율성 제고가 배출 저감의 주요 경로로 평가된다. 또한 육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는 것은 생산량 증가와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 육류 부문의 식품 손실 및 폐기 규모는 측정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USDA-FAO 전망모형의 가정에 따라 가공 단계에서 약 13.5%, 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 추가로 약 12.2%가 손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냉장 유통망 개선, 소비자 교육 등을 통해 폐기 감소 노력 등을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 2.2.3. 교역

단기 전망에는 중국의 육류 부문이 ASF 이후 회복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세계 육류 교역은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SF 확산기에 확대되었던 수입 수요가 정상화되고, 중국 정부의 자급률 제고 정책이 국내 생산 확대를 뒷받침하면서 수입의존도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세계 육류 교역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 속도는 이전 10년의 절반 수준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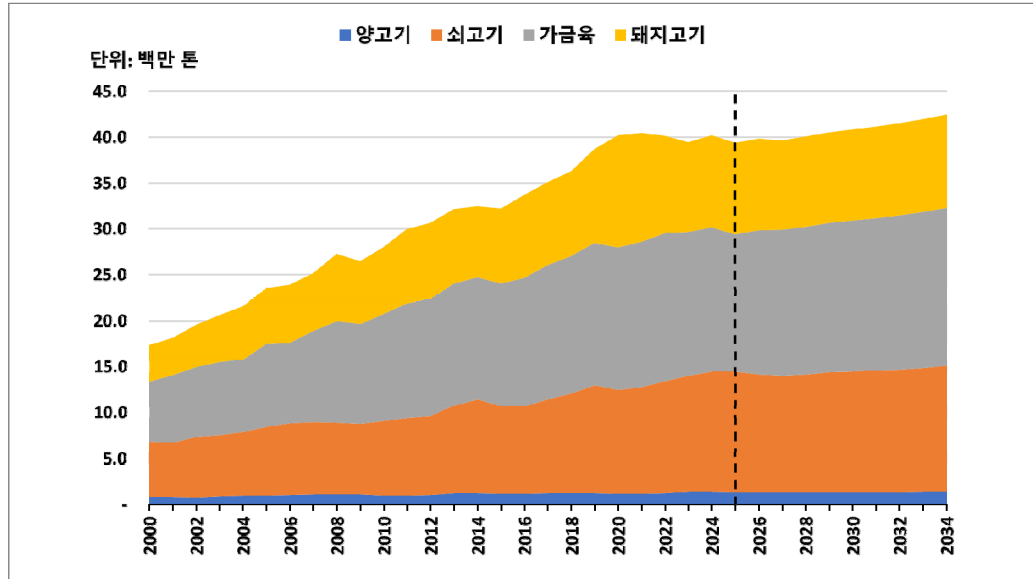
2034년까지 브라질, EU, 미국은 세계 육류 수출의 54%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출국 가운데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인도, 태국, 튀르키예는 낮은 가격과 안정적 사료 공급을 바탕으로 비교적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환경 규제 준수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유럽 생산자의 경쟁력 약화 등의 이유로 유럽연합은 2021년 이후 수출 점유율의 하락 추세를 이어가며 2034년에는 19%에서 1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고기 부문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두 국가는 유럽과 북미의 고부가가치 시장에 집중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는 고급 레스토랑 수요가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경량 램 수출을 확대하는 대신, 성체 양고기 수

출을 상대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호주 지역에서는 해상 수출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호주 정부는 살아있는 양의 수출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법안에 따라 2028년에 종료될 예정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토지 이용이 양 사육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생산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생산성 향상이 이를 일부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EU와 영국의 양고기 생산자는 가축 질병의 발생과 낮은 수익성 등 구조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중동 지역에서는 증산층 확대로 인해 양고기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양고기 교역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축종별 교역 현황 및 전망



자료: OECD/FAO(2025: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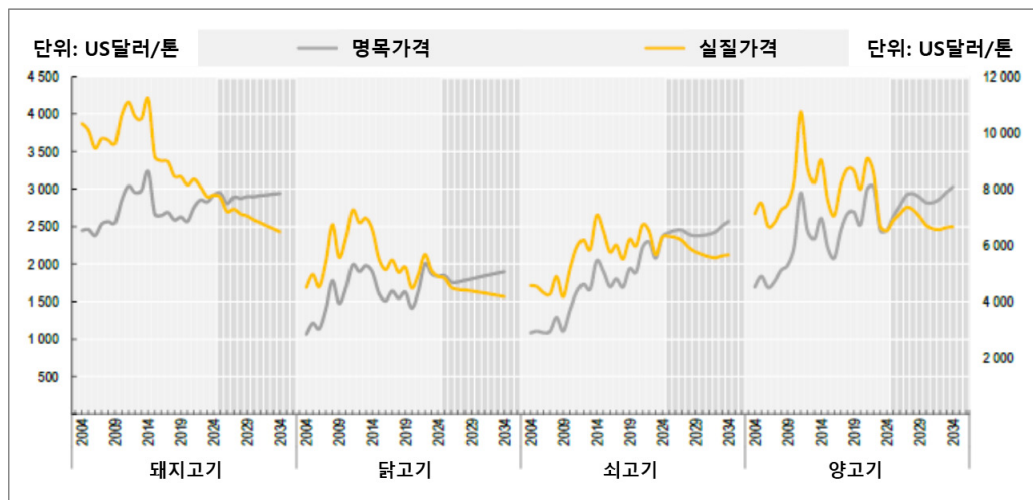
#### 2.2.4. 가격

가격 전망은 생산성 및 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축종별 가격의 차별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 전망에서는 소와 양의 사육마릿수 변화로 인해 공급 확대에 제약이 있어 도축 물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반추 가축 육류는 완만한 생산 확대와 중국의 수입 수요 감소에 따라 가격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적으로는 사료비, 노동비 등 실질 운용비용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성의 향상 등으로 인해 실질 육류 가격은 현재 수준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쇠고기와 양고기 부문에서는 사육마릿수 회복이 본격화되는 2027년을 기점으로 실질가격은 점차 하락하여, 전망 후기에는 2027년 대비 약 8% 낮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비반추 가축 육류의 실질가격은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하여 현재 시점 대비 약 20%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축종별 가격의 장기적 격차는 지난 20년간 지속된 현상이며, 전망 기간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돼지고기와 가금육 부문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상대적으로 크게 이루어진 반면, 쇠고기와 양고기 부문의 생산성 개선 속도가 비교적 완만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사료에 대한 가격 하락이 단백질 투입 비중이 높은 돼지고기와 가금육 생산 비용을 추가적으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축종 간 가격 격차 확대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돼지고기와 가금육으로의 소비 전환을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5〉 축종별 명목가격 및 실질가격



자료: OECD/FAO(2025: 93).

### 2.3. 위험 및 불확실성

육류 부문은 다양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으며, 가축 질병의 확산은 그중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 정책 변화, 무역 여건 변화 및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식단·건강·동물복지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육류의 생산, 교역, 소비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유럽에서는 2011년 이후 발생하지 않았던 구제역이 일부 국가에서 재발생하면서, 질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제역은 경제적 피해 규모가 크고 통제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가축 질병으로 최근 HPAI 등 다양한 질병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과 맞물려 축산부문의 위험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EU 농업전망(2024-2035)에서는 HPAI가 연중 상시적으로 위험 요인이 될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방사 사육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역시 HPAI 확산으로 가금류 및 계란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최고 수준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이와 같이 질병은 생산 차질, 수출제한, 식품 안전 우려에 따른 소비 위축 등 연쇄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질병 미발생 국가로부터 수입하거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지역화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공급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가축 살처분 및 자원 손실에 따른 환경적 비용은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갑작스러운 생산 및 교역에 대한 위험 요인은 존재하고 있다.

계절적 기상 충격 역시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가뭄이나 홍수는 사료곡물 수확량과 수자원 공급을 감소시켜 생산비를 상승시키고 육류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상 변동성 확대는 농가 단위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탄소가격제, 분뇨 관리 규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육마릿수 제한 등 정책적 수단이 생산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육마릿수 상한을 설정하거나 저배출 사육 방식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축산부문의 구조적 조정을 유도할 수 있다.

한편, 소득이 높은 국가 중심으로 소비자 선호도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환경적 이유로 적색육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으면서 전통적 육류 수요 증가세를 둔화되

거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육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10년간 생산자와 주요 수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연구(Springmann et al., 2025)에서는 식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차등 세율 적용 시 영향을 분석하였다. 육류 및 유제품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과일·채소에 대한 세율을 인하할 경우 유럽 내 식습관이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은 육류 수요 증가세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항생제 내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축산부문의 항생제 사용 감축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 회원국의 20%는 성장촉진 목적의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생물보안 강화 및 사육관리 개선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생산비 상승 및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관세 인하,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정책의 변화는 국내외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보호무역의 성격을 띤 정책은 교역 규모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무역장벽 상승에 따른 국내 가격이 상승하는 한편 국제 가격에는 하방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 3. 유제품

#### 3.1. 최근 시장 동향

2024년 FAO 유제품 가격 지수는 버터 가격의 상승으로 상승하였다. 버터 가격은 2024년 중반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한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유의 유지방 성분과 무지방 고형분 간 가격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2024년 세계 원유 생산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약 9억 5,000만 톤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각각 3%씩 증가한 2억 2,700만 톤, 6,600만 톤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국가는 원유 및 유제품 수출 비중이 제한적이므로 세계 유제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한편, 유제품 주요 수출국인 뉴질랜드와 EU는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미국은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세계 유제품 교역을 살펴보면, 중국의 수입이 탈지분유와 전지분유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2024년에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주요 수입국은 유제품 수입을 확대하였다.

## 3.2. 시장 전망: 2025-2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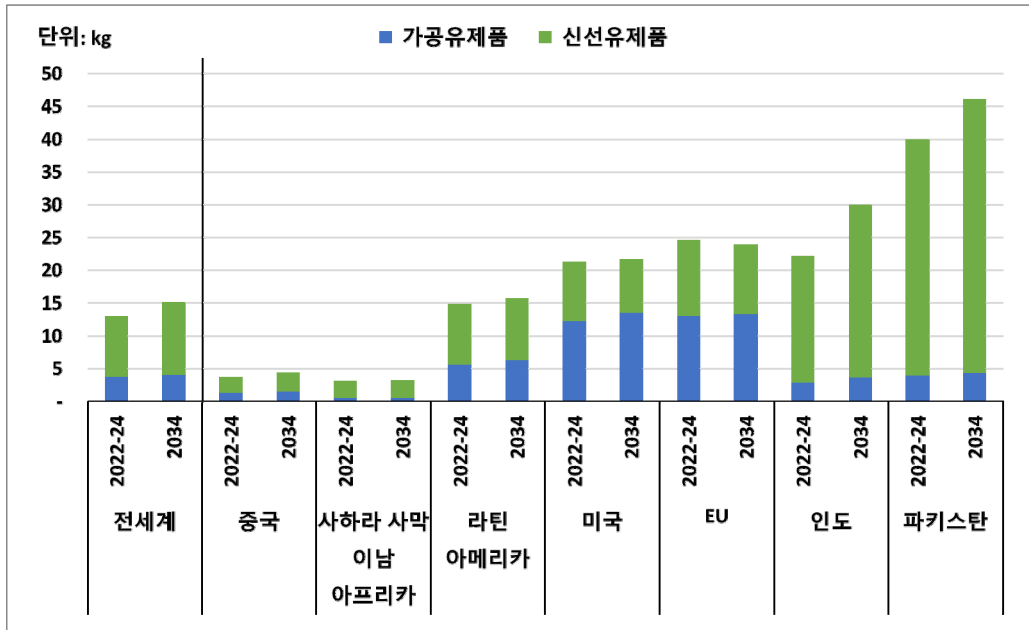
### 3.2.1. 소비

원유는 부패하기 쉬운 제품 품목으로 집유 이후 신속한 가공이 필요하며, 대부분 발효유 및 저온 살균유를 포함한 신선 유제품 형태로 가장 많이 소비된다. 소득 증가와 도시화, 인구 증가로 인해 인도와 파키스탄의 수요 증가로 인해 향후 10년간 신선 유제품이 전체 유제품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1인당 신선 유제품 소비는 향후 10년간 매년 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득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국가별 1인당 원유 소비(유고형분<sup>5)</sup> 기준)는 소득 수준과 지역적 식문화 차이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며,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소비가 각각 30kg, 40kg까지 증가하여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1인당 신선 유제품 소비는 현재 EU 및 북미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향후 10년간 비교적 높은 증가세가 전망된다. 소득이 낮은 국가 및 하위 중소득 국가에서는 생산된 원유의 대부분이 신선 유제품 형태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유럽과 북미의 전체 1인당 신선 유제품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소비 형태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지우유와 크림 등 유지방 함량이 높은 제품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동시에 식물성 대체 유제품의 시장 내 입지가 점차 확대되며, 가공 유제품보다 신선 유제품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5) 유고형분(Milk solids)은 각 제품의 지방과 무지유고형분(non-fat solids, 우유에서 유지방과 수분을 뺀 뒤 남는 고형 성분)의 양을 합하여 추산됨.

〈그림 6〉 1인당 신선 및 가공 유제품 소비 전망



주 1) 신선유제품 소비 전망은 유고형분(Milk solids)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각 제품의 지방과 무지방유고형분(non-fat solids)의 양을 합하여 추산됨.  
 2) 가공유제품은 버터, 치즈, 탈지분유 및 전지분유를 포함함.  
 자료: OECD/FAO(2025: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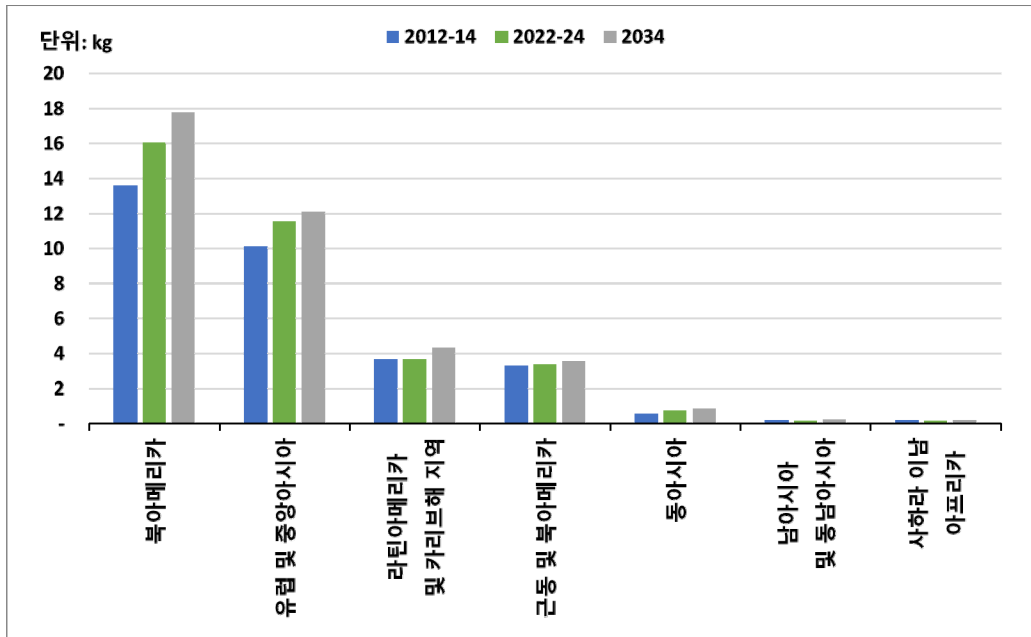
가공 유제품, 특히 치즈가 전체 유고형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 수준과 연관되어 있다. 다만, 지역별 식문화, 식이 제한 요인, 도시화 수준 등에 따라 국가간 차이가 나타난다. 전체 치즈 소비는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1인당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터 소비는 최근 북미와 동남아시아에 선호 변화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기(ghee)버터 형태를 중심으로 1인당 버터 소비가 많이 되고 있으나, 추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는 치즈 등 가공 유제품 소비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탈지분유와 전지분유는 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제과·제빵, 영아용 조제분유, 제과류 산업에서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유제품, 특히 탈지분유와 유청분말은 사료용으로도 사용되나 그 비중은 제한적이다. 유청분말은 임상용·영양아용·노인용 영양식품 가공에 활용되면서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또

한 원유 생산이 제한적인 아프리카 등 일부 지역에서는 환원 유제품(우유, 발효유 등) 원료로 활용되며, 수입 대체 수단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림 7〉 1인당 치즈 소비 전망



자료: OECD/FAO(2025: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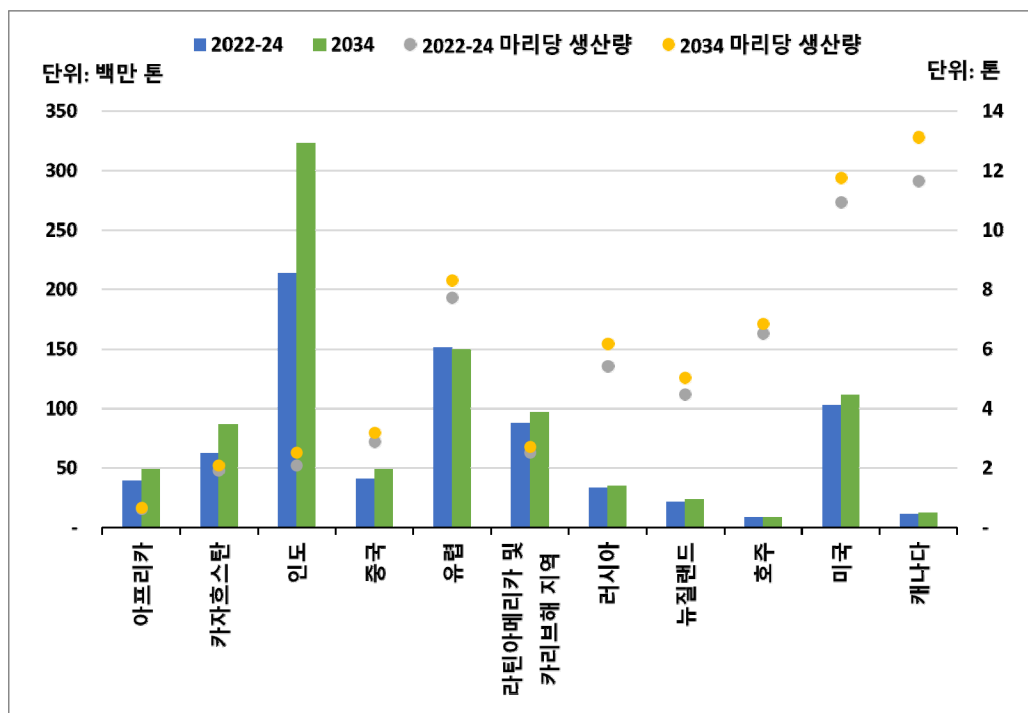
### 3.2.2. 생산

향후 10년간 세계 원유 생산은 연평균 1.8%씩 증가하여 2034년에는 11억 4,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다른 주요 농산물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다. 젓소 사육마릿수는 북미와 중국에서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은 현재 마리당 산유량이 낮은 수준으로 사육마릿수 확대와 생산성 개선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적으로 사육마릿수 증가보다 마리당 산유량 향상이 생산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생산성 개선은 낙농 시스템의 최적화, 가축 건강관리 강화, 사료 이용 효율 제고, 유전적 개량 확대 등을 통해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생산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 인도의 낙농 생산은 소규모 농가를 기반으로 하되, 가공·유통 부문에서 협동조합과 연계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낙농 부문의 부가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향후 생산량은 착유우 및 물소의 사육마릿수 확대와 더불어 마리당 산유량 증가의 영향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8〉 주요 국가 및 지역별 원유 생산량 및 산유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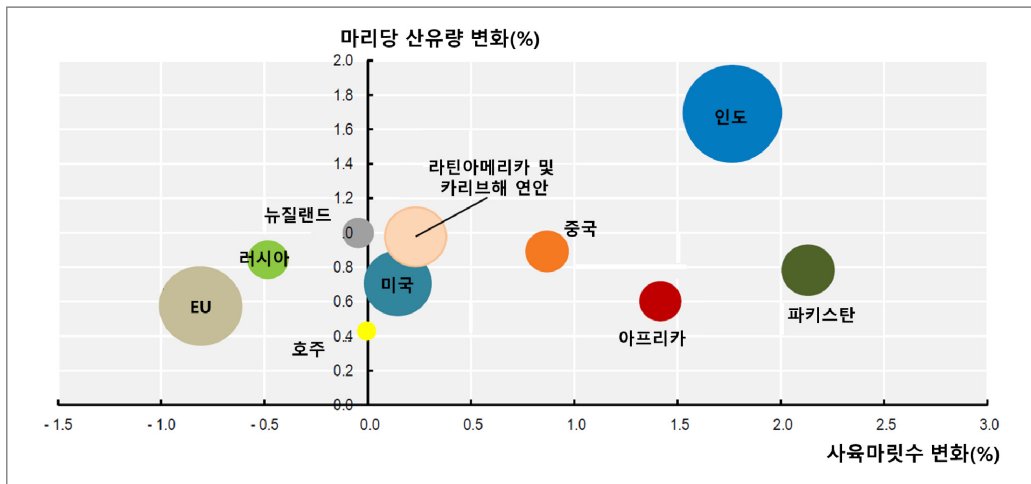
자료: OECD/FAO(2025: 100).

EU의 원유 생산은 젖소 사육마릿수 감소와 산유량 증가세의 둔화로 정체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생산 방식은 초지 기반과 사료 급여 기반 시스템이 혼재되어 있으며, 향후 유기농 및 기타 비전통적 생산 방식의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라트비아, 스웨덴 등을 중심으로 전체 젖소 사육마리 중 10% 이상이 유기농 사육 방식으로 사육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도 유기농 생산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다만 유기농 사육 방식의 산유량은 관행 사육 방식의 약 75% 수준으로 생산비도 높아 수익성 확보를 위해 상당한 가격 프리미엄이 요구된다.

북미 지역의 마리당 산유량은 전 세계 평균 대비 약 4배 높으며, 이는 초지 기반의 비중이 낮고, 특화된 축종을 중심으로 고산유 체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젖소 사육마릿수는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다만 산유량 개선을 통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국내 수요가 유지방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을 포함한 탈지분유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는 세계 원유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에 불과하지만, 수출 지향성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과거 빠른 생산 확대 이후 최근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며, 향후 10년간 연평균 0.9%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은 주로 초지를 활용한 사육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산유량은 북미나 유럽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헥타르당 산유량을 중심으로한 초지 관리의 비용 효율 측면에서 경쟁력을 보인다. 토지 가용성 제약과 2019년 제정된 「기후변화대응법(Zero Carbon Amendment Act)」에 따른 환경 규제 강화가 주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사료 급여 중심 사육 방식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9〉 2025~2035년 낙농 사육마릿수 및 산유량의 연평균 변화율



주: 원의 크기는 2022-24년 평균 우유 생산량을 기준으로 함.  
 자료: OECD/FAO(2025: 101).

낙농 부문은 농업 분야 가운데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으로 평가된다. 국제낙농연맹(IDF)은 수년간 낙농 부문의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체계 구축에

참여해 왔다. 전 세계 낙농산업이 생산에서 가공까지의 전 과정에서 탄소발자국을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하고, 기술 연구 및 적용을 통해 배출 저감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IDF는 낙농 부문의 공통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는 국제적 협력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낙농 부문 차원의 감축 성과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향후 10년간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30%는 버터,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 유청분말 등으로 추가 가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역별 차이가 뚜렷한데, 고소득 국가에서는 생산된 원유의 대부분이 가공 유제품으로 전환되며, 유럽과 북미에서는 버터와 치즈가 유고형분 소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식품 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탈지분유와 전지분유는 주로 교역 목적과 더불어 제과·제빵, 영아용 조제분유 등 식품 가공 산업의 원료로 활용된다. 반면, 저소득 및 하위 중소득 국가는 원유 생산의 상당 부분이 신선 유제품 형태로 소비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 3.2.3. 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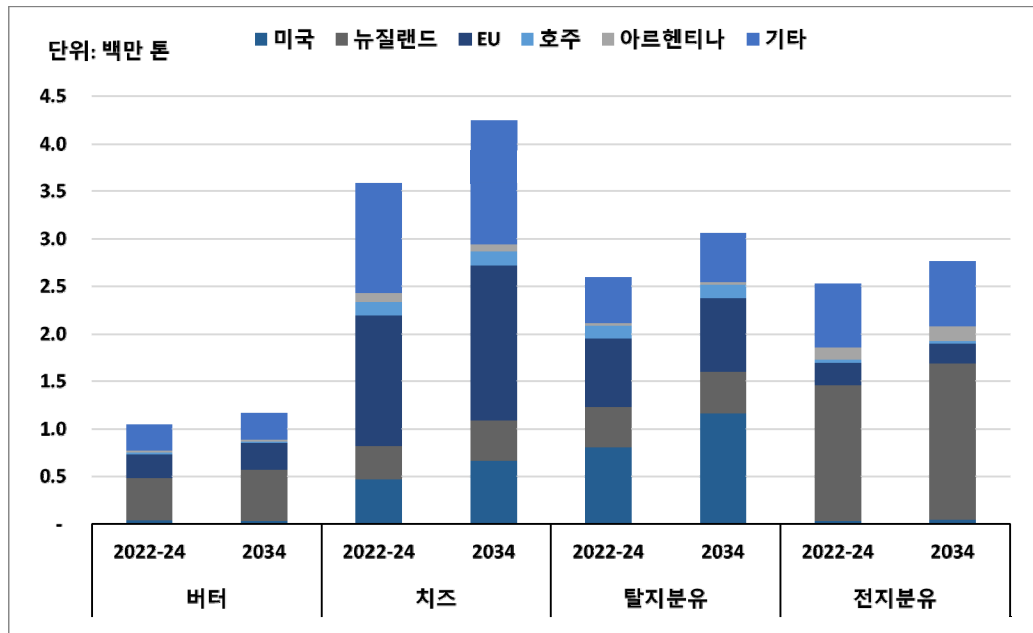
대부분의 유제품은 생산국 내에서 소비되며, 전 세계 원유 생산량 가운데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비중은 7% 미만에 불과하다. 이는 원유가 부패하기 쉽고, 수분 함량이 85% 이상으로 운송·보관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전지분유와 탈지분유는 장기간 저장과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 생산량의 50%가 교역되고 있다. 발효유 등 일부 품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캐나다와 미국, EU와 스위스와 같이 인접 국가와 거래된다. 예외적으로 중국은 초고온 처리 우유 및 크림 제품을 활용하여 EU와 뉴질랜드로부터 액상 우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비교적 유리한 운송 조건을 갖추고 있어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10년간 세계 유제품의 교역량은 점차 확대되어 2034년에는 1,38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기준기간 대비 약 12% 증가한 수준이다. 교역량 증가의 상당 부분은 미국, EU, 뉴질랜드의 수출량 증가분으로 예상되며, 2034년 기준 이들 3개국은 치즈 수출의 약 64%, 전지분유의 69%, 버터의 73%, 탈지분유의 7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는 최근 시장 점유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치즈와 탈지분유의 주요 수출국이다. 아르헨티나는 전지분유의 중요한 수출국으로, 2034년에는 세계 수출의 약 6%를 차

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벨라루스는 최근 수년간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하며, 2015년 이후 러시아의 일부 주요 낙농 수출국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러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해 왔다.

〈그림 10〉 국가별 유제품 수출량



자료: OECD/FAO(2025: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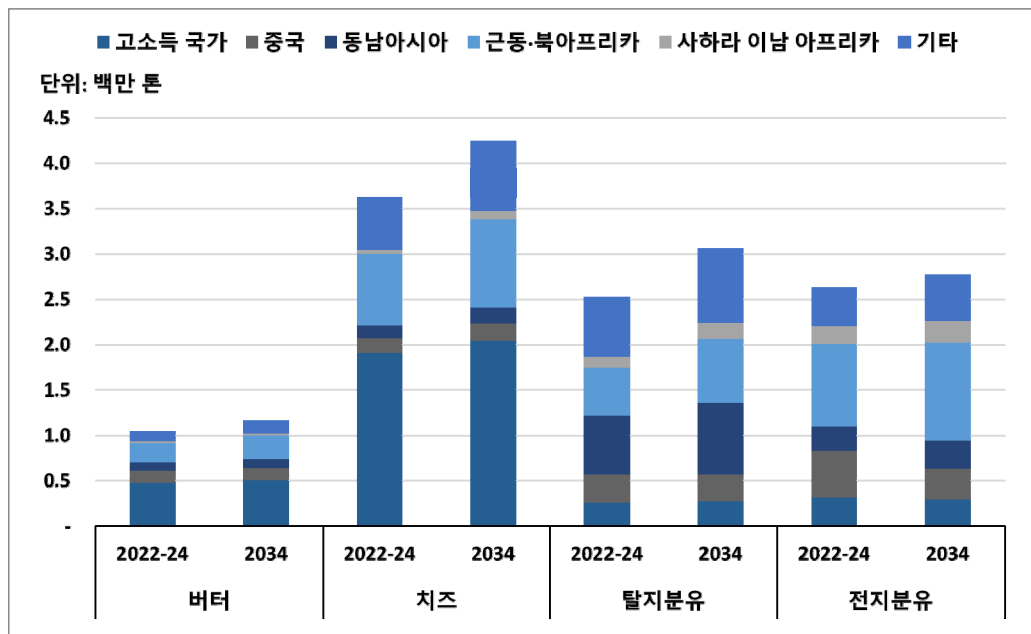
EU는 향후 세계 최대 치즈 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뒤를 미국과 뉴질랜드가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2034년 기준 주요 치즈 수입국은 영국, 러시아, 일본,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강하기 때문에 치즈를 수출하기도 하며, 국제 무역을 통해 자국 내 제품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는 국제 시장에서 버터와 전지분유의 최대 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4년에는 각각 약 46%, 59%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뉴질랜드산 전지분유의 주요 수입국이나, 중국 내 원유 생산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지분유 수입 증가세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수출량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을 수출국으로, 특히 탈지분유의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 기존 투자 규모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건조 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탈지분유는 식품 가공에 많이 활용되므로 교역에 용이한 품목으로 평가되며, 수입 수요도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유제품의 주요 수입 지역은 북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중국 등으로 나타난다.

중국은 당분간 세계 최대 유제품 수입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34년 중국의 전지분유 수입은 세계 전체 수입의 약 1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기준기간 대비 7.5%p 감소한 수준이다. 한편 아프리카는 향후 10년간 전지분유 수입을 상당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1인당 유제품 소비는 전통적 소비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지난 10년간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주로 오세아니아 지역으로부터 유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나, 최근 EU가 버터와 탈지분유의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 국가별 유제품 수입량



자료: OECD/FAO(2025: 103).

전 세계 유청분말 시장은 고단백 식단에 대한 수요 확대와 사료용 활용 증가로 확장하고 있다. 향후 중기적으로 유청분말 교역은 확대될 전망이며, 중국은 주로 사료첨가제 용도로 활용하면서 최대 수입시장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유청분말의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과 함께 세계 수출의 4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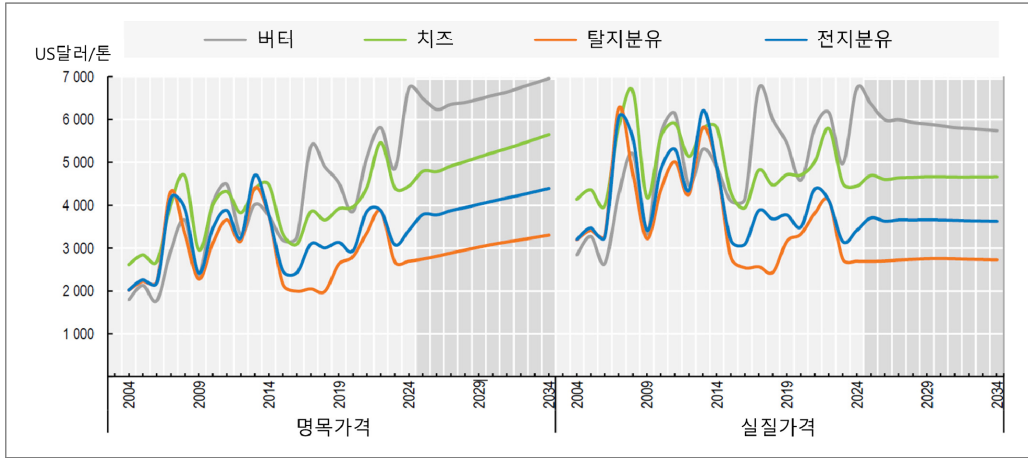
인도와 파키스탄 등 일부 지역은 자급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근동·북아프리카(NENA) 지역에서는 유제품 소비 증가 속도가 생산 증가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유제품 수입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액상유는 부피 대비 가치가 낮아 국제 교역 비용이 높기 때문에, 추가 수요는 주로 분유의 형태로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품은 소비 단계 또는 가공 과정에서 물을 첨가하여 환원 후 사용된다. 근동·북아프리카 지역의 분유 수입은 주로 EU에서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남아시아는 미국과 오세아니아로부터 주로 수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 3.2.4. 가격

국제 유제품 가격은 주로 오세아니아와 유럽의 주요 수출국에서 거래되는 가공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형성된다. 대표적인 기준 가격은 버터와 탈지분유로 버터는, 유지방을 탈지분유는 무지방 고형분을 대표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유지방과 무지방 고형분은 원유 전체 중량의 약 13%를 차지하며, 나머지 부분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이후 버터 가격은 탈지분유 가격보다 큰 폭으로 형성되었으며, 향후에도 무지방 고형분 대비 유지방 수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가격 격차는 지속될 전망이다.

2024년 연간 버터 가격에 대한 조정의 영향으로 향후 2년간 버터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전망 기간 중 버터와 탈지분유의 가격은 명목가격 기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두 제품 간 가격 차이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지분유와 치즈의 국제 가격도 유지방 및 무지방 고형분 함량 비중에 따라 버터와 탈지분유 가격 흐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유제품 가격의 명목가격 및 실질가격: 2004~2034년



자료: OECD/FAO(2025: 103).

### 3.3. 위험 및 불확실성

전망에서 가정한 수준보다 강화된 환경 규제가 도입될 경우, 낙농 생산 전망에서는 상당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뉴질랜드나 아일랜드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낙농 활동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9월 출범한 ‘Pathways to Dairy Net Zero’와 같은 부문 차원의 감축 이니셔티브는 생산 규모와 방식에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수자원 관리, 분뇨처리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강화 역시 생산 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환경 규제의 강화는 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 세계 낙농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인도와 같이 사육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생산 방식을 가진 국가에서 생산성 향상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원유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대두, 아몬드, 쌀, 귀리 음료 등과 같은 식물성 대체 유제품은 북미, 유럽,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전통적인 원료를 넘어 견과류, 콩류, 기타 작물 기반 제품으로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확대의 주요한 요인으로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낙농 생산의 환경영향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유당불내증 등이 지목된다. 식물성 대체 유제품의 성장률은 아직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강하며, 환경적 효

과나 건강상의 이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한다. 향후 해당 제품군의 확산 속도에 따라 유제품 수요 구조에 대한 변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환경 변화 역시 낙농 교역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 무역협정의 수정이나 신규 협정 체결에 따라 유제품 수요 및 교역 구조는 재편될 수 있다. 다만, 인도와 파키스탄은 자국 내 생산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제 유제품 시장으로의 통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축 질병 역시 낙농산업의 주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에서 2024년 3월까지 17개 주에서 젖소에서 약 1,000건의 HPAI 바이러스 발견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2025년 1월과 3월에는 EU에서도 세 차례의 구제역 발생 사례가 보고되었다. 세계 교역과 국경 간 가축 이동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가축 질병은 국경을 넘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낙농 산업 성장에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본 전망에서는 이러한 질병을 구조적 생산 수준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가정하지 않았다.

## 4. 요약 및 시사점

### 4.1. 육류

세계 육류 소비량은 향후 10년간 총 4,79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연간 0.9kg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증가세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 국가는 동물복지, 환경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국가의 1인당 육류 소비가 정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요 증가와 소비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생산 부문에서는 생산성 개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육 효율성과 도축 수율 개선은 육류 생산의 환경적 영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도체중량 증가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은 각각 8%, 27%, 19%씩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생산성 향상과 함께 가금육 비중의 확대가 진행되면서 향후 10년간 육류 생산량은 13% 증가하는데 비해 온실가스 배출은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요 및 생산 구조의 변화는 국제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의 육류 수입 비중 축소는 글로벌 교역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34년까지 중국의 세계 육류 수입 점유율은 20%에서 16%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돼지고기 수입 의존도 감소는 주요 수출국의 돼지고기 생산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금육 역시 비슷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세계 육류 수입은 이전 10년간 37% 증가한 것에 비해 향후 10년간 1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국의 무역 조치를 강화할 경우 추가적인 감소 가능성이 존재한다.

수급 및 교역 여건의 변화는 가격 흐름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육류의 실질가격은 상승 추세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재고 회복과정에서 공급 증가가 제한되며 반추동물, 특히 쇠고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비반추동물의 육류 가격은 완만한 생산 확대와 중국의 수입 수요 감소에 따라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 사료비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타 실질 운영비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육류 공급 증가세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는 수요 둔화, 실질 사료비 하락,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의 영향으로 실질 육류 가격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중기 전망은 가축 질병 발생이라는 구조적 불확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가축 질병 발생 및 확산은 육류 부문에서 상당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적인 생물보안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HPAI, ASF의 지속적인 확산과 구제역(FMD)<sup>6)</sup>의 재확산, 그리고 신세계 나사벌레(NWS)<sup>7)</sup> 등의 확산은 중기 전망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4.2. 유제품

유제품은 균형 잡힌 건강 식단의 핵심 구성 요소로 인식되며, 소비자에게 높은 가치를

6) 구제역(Foot-and-Mouth Disease, FMD)은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에서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아 발병 시 경제적 타격이 큰 대표적인 가축 질병으로 국내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1종 가축전염병에 해당되며, 백신정책을 통해 발병을 관리함.

7) 신세계 나사벌레(New World Screwworm, NWS)는 파리 유충이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상처 부위에 기생하여 조직을 파괴하는 기생성 질병으로 중남미 및 북미 일부 지역에서 피해를 유발하는 주요한 외래성 가축 질병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발견사례가 없음.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 유제품 소비는 소득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중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유제품 소비의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며, 치즈 소비는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의 원유 생산은 마리당 산유량 증가 및 생산성 향상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1.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원유 생산량 중 젖소가 81%를 차지하며, 물소(15%), 염소·양·낙타(4%) 순으로 전망된다. 원유 생산량은 대부분 인도와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EU에서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의 환경 및 건강 관련 관심도는 유제품 부문의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가에서는 낙농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배출 저감을 목표로 낙농 기술 개선과 사양 방식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원유는 고유적인 특성상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비중은 매우 제한적이며, 주로 가공 유제품 형태로 거래된다. 원유의 교역은 뉴질랜드, EU,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국가의 수출량은 전 세계 유제품 수출량의 7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낙농 부문 역시 여러 불확실성 요인이 존재한다.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는 식물성 대체 유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낮은 수준이나,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가축 질병은 생산에 주요한 위협 요인으로, 최근 조류인플루엔자의 젖소 전파 사례가 발견되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주요 수출국 중 EU와 뉴질랜드에서 생산에 차질이 발생 시 미국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 부록. 품목별 시장 전망

부표 1. 쇠고기 전망(소비, 생산, 수입, 수출, 세계가격)

단위: 백만 톤(도체중 기준), 달러/톤

구분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소비	65.4	67.2	70.0	71.8	72.8	73.9	75.7	75.7	76.4	77.0	78.4	79.5	80.4	81.4	82.3	83.0	83.7
생산	66.8	67.8	70.7	72.3	73.6	74.6	75.9	75.6	76.4	77.0	78.4	79.5	80.5	81.4	82.3	83.0	83.7
수입	8.3	10.4	12.2	12.5	12.7	13.0	14.3	14.4	14.1	14.0	14.2	14.4	14.5	14.6	14.7	14.8	14.9
수출	9.7	11.1	12.8	13.0	13.5	13.9	14.4	14.4	14.1	14.0	14.2	14.4	14.5	14.6	14.7	14.8	14.9
세계 가격	3,662.7	5,061.6	5,023.1	5,925.4	6,114.0	5,533.1	6,289.4	6,439.7	6,524.9	6,530.1	6,388.8	6,331.9	6,347.9	6,386.2	6,471.6	6,677.3	6,849.9

자료: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 2026.2.27.의 자료를 재가공하여 저자 작성.

부표 2. 돼지고기 전망(소비, 생산, 수입, 수출, 세계가격)

단위: 백만 톤(도체중 기준), 달러/톤

구분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소비	107.2	118.4	108.7	121.3	122.3	124.2	124.0	125.0	125.7	126.0	126.8	127.1	127.6	128.1	128.6	129.1	129.6
생산	108.0	119.2	108.6	120.9	122.3	124.2	124.0	125.0	125.7	126.0	126.8	127.1	127.6	128.1	128.6	129.1	129.6
수입	6.9	7.9	12.7	12.9	11.3	10.3	10.6	10.5	10.5	10.4	10.4	10.4	10.4	10.5	10.5	10.6	10.6
수출	7.7	8.7	12.7	12.5	11.1	10.4	10.6	10.5	10.5	10.4	10.4	10.4	10.4	10.5	10.5	10.6	10.6
세계 가격	2,850.9	2,669.3	2,569.0	2,754.2	2,852.6	2,827.8	2,917.0	2,944.5	2,808.6	2,890.4	2,876.5	2,898.3	2,898.1	2,913.2	2,920.5	2,933.5	2,941.1

자료: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 2026.2.27.의 자료를 재가공하여 저자 작성.

부표 3. 가금육 전망(소비, 생산, 수입, 수출, 세계가격)

단위: 백만 톤(도체중 기준), 달러/톤

구분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소비	100.1	115.8	135.9	137.9	140.5	143.7	147.4	151.4	154.0	156.7	159.1	161.5	163.9	166.3	168.7	171.0	173.4
생산	100.5	117.2	137.3	139.1	141.9	144.6	148.2	151.4	154.0	156.7	159.1	161.5	163.9	166.3	168.7	171.1	173.4
수입	11.4	11.9	14.0	14.5	14.7	14.7	14.8	15.0	15.6	15.8	15.9	16.1	16.3	16.4	16.7	16.9	17.1
수출	11.7	13.3	15.4	15.7	16.1	15.6	15.7	15.0	15.6	15.8	15.9	16.1	16.3	16.4	16.7	16.9	17.1
세계 가격	1,678.8	1,606.2	1,411.0	1,632.4	2,001.3	1,868.8	1,835.1	1,842.5	1,755.8	1,756.6	1,778.8	1,799.2	1,819.4	1,840.4	1,857.7	1,876.9	1,895.0

자료: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 2026.2.27.의 자료를 재가공하여 저자 작성.

부표 4. 양고기 전망(소비, 생산, 수입, 수출, 세계가격)

단위: 백만 톤(도체중 기준), 달러/톤

구분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소비	13.1	14.5	15.9	16.1	16.5	16.8	16.8	17.2	17.4	17.6	17.9	18.1	18.4	18.6	18.9	19.1	19.4
생산	13.3	14.6	15.9	16.2	16.7	16.9	16.9	17.2	17.4	17.6	17.9	18.1	18.4	18.6	18.9	19.1	19.4
수입	1.2	1.4	1.4	1.4	1.4	1.5	1.5	1.6	1.6	1.5	1.5	1.5	1.6	1.6	1.6	1.6	1.6
수출	1.4	1.5	1.4	1.5	1.5	1.6	1.6	1.6	1.6	1.5	1.5	1.5	1.6	1.6	1.6	1.6	1.6
세계 가격	5,936.6	5,898.7	6,723.7	7,993.0	8,065.9	6,530.1	6,517.2	7,017.2	7,405.3	7,779.4	7,826.2	7,693.6	7,512.4	7,519.6	7,647.9	7,879.3	8,067.9

자료: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 2026.2.27.의 자료를 재가공하여 저자 작성.

부표 5. 가공유제품 전망(소비, 생산, 수입, 수출)

단위: 백만 톤(도체중 기준), 달러/톤

구분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소비	38.3	44.2	47.4	47.8	47.9	48.6	48.9	50.2	50.9	51.6	52.4	53.1	53.8	54.5	55.2	55.9	56.6
생산	6.7	8.7	10.0	10.0	9.9	9.8	9.7	9.9	10.1	10.2	10.4	10.5	10.6	10.8	10.9	11.1	11.2
수입	37.6	43.6	47.3	47.7	48.1	48.7	48.9	50.1	50.9	51.6	52.4	53.1	53.8	54.5	55.2	55.9	56.6
수출	7.4	9.0	10.0	10.1	9.8	9.8	9.7	9.9	10.1	10.2	10.4	10.5	10.6	10.8	10.9	11.1	11.2

주: 가공유제품은 버터,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를 포함함.

자료: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 2026.2.27.의 자료를 재가공하여 저자 작성.

부표 6. 버터 전망(소비, 생산, 수입, 수출, 세계가격)

단위: 백만 톤(도체중 기준), 달러/톤

구분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소비	9.5	11.1	12.5	12.5	12.6	12.9	13.1	13.7	14.0	14.2	14.5	14.8	15.1	15.3	15.6	15.9	16.1
생산	9.5	11.2	12.6	12.5	12.6	12.9	13.1	13.7	14.0	14.2	14.5	14.8	15.1	15.3	15.6	15.9	16.1
수입	0.8	0.9	1.0	1.0	1.1	1.0	1.0	1.1	1.1	1.1	1.1	1.1	1.1	1.1	1.1	1.2	1.2
수출	0.9	1.0	1.0	1.0	1.1	1.1	1.0	1.1	1.1	1.1	1.1	1.1	1.1	1.1	1.1	1.2	1.2
세계 가격	4,045.2	3,182.7	3,854.8	5,111.1	5,809.1	4,854.8	6,721.6	6,488.8	6,234.1	6,349.8	6,394.4	6,472.7	6,559.9	6,636.3	6,744.7	6,848.1	6,954.0

자료: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 2026.2.27.의 자료를 재가공하여 저자 작성.

부표 7. 치즈 전망(소비, 생산, 수입, 수출, 세계가격)

단위: 백만 톤(도체중 기준), 달러/톤

구분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소비	20.4	22.8	25.0	25.7	25.8	26.0	26.1	26.6	27.0	27.3	27.6	27.8	28.1	28.4	28.7	29.0	29.3
생산	21.0	23.0	25.1	25.6	25.6	25.9	26.1	26.7	27.0	27.3	27.6	27.9	28.1	28.4	28.7	29.0	29.3
수입	2.3	2.9	3.4	3.6	3.6	3.6	3.7	3.7	3.8	3.8	3.9	3.9	4.0	4.1	4.1	4.2	4.2
수출	2.8	3.0	3.5	3.5	3.5	3.6	3.7	3.7	3.8	3.8	3.9	3.9	4.0	4.1	4.1	4.2	4.2
세계 가격	4,006.7	3,336.1	3,958.2	4,416.3	5,457.2	4,406.3	4,445.2	4,788.5	4,782.8	4,912.0	5,012.1	5,120.5	5,223.5	5,321.2	5,425.7	5,535.4	5,647.5

자료: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 2026.2.27.의 자료를 재가공하여 저자 작성.

부표 8. 탈지분유 전망(소비, 생산, 수입, 수출, 세계가격)

단위: 백만 톤(도체중 기준), 달러/톤

구분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소비	3.5	4.2	4.6	4.5	4.7	4.7	4.4	4.5	4.6	4.7	4.8	4.9	5.0	5.0	5.1	5.2	5.3
생산	3.4	4.4	4.6	4.6	4.7	4.7	4.5	4.5	4.6	4.7	4.8	4.9	5.0	5.0	5.1	5.2	5.3
수입	1.6	2.3	2.5	2.6	2.5	2.6	2.5	2.6	2.6	2.7	2.7	2.8	2.9	2.9	3.0	3.0	3.1
수출	1.6	2.3	2.6	2.7	2.6	2.6	2.6	2.6	2.6	2.7	2.7	2.8	2.9	2.9	3.0	3.0	3.1
세계 가격	3,117.3	2,164.9	2,798.6	3,356.7	3,864.9	2,678.8	2,694.7	2,744.1	2,808.3	2,883.0	2,952.7	3,022.3	3,087.1	3,141.9	3,193.0	3,248.1	3,302.7

자료: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 2026.2.27.의 자료를 재가공하여 저자 작성.

부표 9. 신선유제품 전망(소비, 생산, 수입, 수출)

단위: 백만 톤(도체중 기준), 달러/톤

구분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소비	381.2	419.1	490.6	510.0	502.1	511.8	518.9	535.6	548.4	558.9	572.9	586.0	597.8	610.9	624.1	637.0	650.1
생산	381.8	419.4	490.7	510.2	502.5	512.3	519.5	536.4	549.2	559.8	573.6	586.6	598.3	611.3	624.6	637.5	650.5
수입	0.3	0.3	0.4	0.4	0.3	0.4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수출	0.3	0.4	0.4	0.4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자료: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 2026.2.27.의 자료를 재가공하여 저자 작성.

## ■ 참고문헌

정민국·이용건·최진용(2021), 축산업 환경영향 분석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pringmann, M., Dinivitzer, E., Freund, F., Deigård Jensen, J. & C. G. Bouyssou(2025), “A reform of value-added taxes on foods can have health, environmental and economic benefits in Europe”, *Nature Food*, 6(2): 161-169.

OECD/FAO(2025),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5-2034, Paris and Rome, <https://doi.org/10.1787/601276cd-en>.

## ■ 참고 사이트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 검색일: 2026.2.27.

